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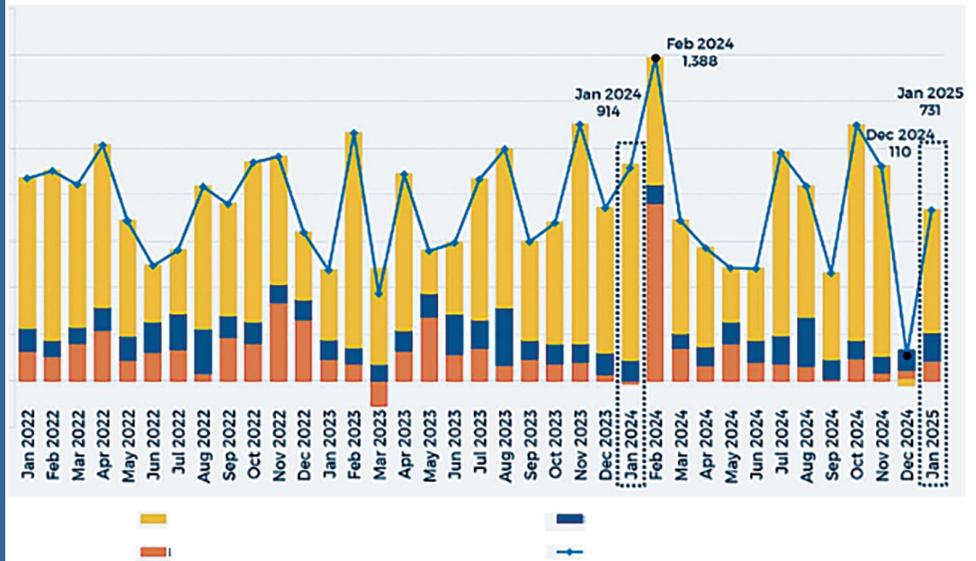
April 2025 Issue | Vol. 23

SPECIAL POINTS OF INTEREST

- 미국 관세의 불확실성, 필리핀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에 악영향 줄 수 있어 — 전문가들 — page 1-2
- 필리핀, 글로벌 무역 충격에 덜 취약하다—발리사칸 — page 3
- 필리핀을 포함한 39개 WTO 회원국, 규칙 기반 무역 지지 — page 3-4
- 필리핀 전자제품 수출, 트럼프 세금 면제 덕분에 구제받다 — MUF6 — page 4-5
- 필리핀, 전자제품 및 전기차(EV) 제조업체 유치를 위해 한국에 제안 — page 5-6
- 세계 불확실성 속에서 8%에 가까운 성장보다 6% GDP 성장 가능성이 더 컸다고 NEDA 발표 — page 6-7

미국 관세의 불확실성, 필리핀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에 악영향 줄 수 있어 — 전문가들

April 14, 2025 | Jimmy Calapati | Malaya Business Insight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필리핀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을 저해할 수 있다고 현지 전문가들이 일요일에 밝혔다.

말라야 비즈니스 인사이트와 주말에 인터뷰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정책은 미국 외부보다는 자국 내에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를 유도한다고 한다.

퍼스트그레이드 파이낸스(First Grade Finance, Inc.)의 매니징 디렉터인 아스트로 델 카스티요(Astro del Castillo)는 “나라가 다시 한번 이웃 국가들에 뒤처지지 않도록,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과 그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능동적으로 헤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지난 목요일 늦게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1월 FDI 순유입액이 7억 3,100만 달러로, 2024년 1월의 9억 1,400만 달러 대비 20% 감소했다고 밝혔다.

BSP 보고서에 따르면, FDI 순유입 감소는 지난해 1월 8억 3,300만 달러에서 올해 1월 5억 1,900만 달러로 37.7% 감소한 비거주자의 부채증권 순투자 감소에서 기인했다.

BSP는 2025년 1월의 주식자본 유입이 주로 미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했으며, 이러한 투자는 대부분 제조업, 금융 보험업 및 부동산 산업에 유입됐다고 덧붙였다.

큰 폭의 감소

델 카스티요는 이번 감소폭이 상당하며 정부에 중요한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웃 국가들은 더 많은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이는 필리핀이 투자 유치 전략을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라고 델 카스티요는 일요일 바이버 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그는 이러한 전략에는 국내 및 역내 강점에 집중하고, 투자 출처를 다변화하며, 필리핀을 투자 대상으로서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주요 개혁을 시행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Cont. page 2]

미국 관세의 불확실성, 필리핀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에 악영향 줄 수 있어 — 전문가들

[Cont. from page 1]

지배적인 투자 심리

오이코노미아 어드바이저리 앤 리서치(Oikonomia Advisory & Research Inc.)의 이코노미스트 매트 에레세(Matt Erece)는 지속되는 무역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이 자본 투자에 소극적이며, 대신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이나 국채와 같은 보다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이러한 심리는 향후 몇 달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두 나라는 모두 필리핀의 주요 교역 파트너입니다.”라고 에레세는 밝혔다.

그는 이러한 부정적인 시장 심리를 상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며, 이는 국제 무역 긴장 속에서도 회복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필리핀이 무역 부문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여전히 양호한 수준

RCBC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리카포트(Michael Ricafort)는 순유입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약 10억 달러에 가까운 순유입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으로 간주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수준이 “팬데믹 이전의 최고치 중 하나에 해당하며, 더 많은 일자리와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또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카포트는 FDI 감소의 일부 원인으로 CREATE MORE의 시행세칙(IRR) 발표 지연을 들며, 해당 시행세칙은 2025년 2월 17일에 발표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몇 달 동안, CREATE MORE 시행세칙의 발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강화된 인센티브 하에서 필리핀에 보다 확고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CREATE MORE는 필리핀을 더 매력적인 비즈니스 대상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 체계를 보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경쟁력 있고, 투자 친화적이며,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이다.

리카포트는 2024년 마지막 분기 동안 일부 지역에서 비즈니스 차질을 야기한 연이은 태풍들과, 2024년 말에 나타난 국내 정치적 잡음 또한 FDI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리카포트는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금리가 더 낮아지기를 기다리며,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추진하기 전 관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통화위원회는 지난 목요일 완화 사이클을 재개하며, BSP의 기준금리(역환매조건부금리)를 25bp 인하한 5.50%로 결정했다.

BSP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교역 상대국에 부과했던 고율의 수입 관세 대부분을 90일간 유예하기로 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리카포트는 완만한 물가 상승률 전망과 2024년 4분기의 전년 대비 5.3%의 부진한 GDP 성장률이 향후 몇 달간 국내 금리 인하를 더욱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미국 Fed와 BSP가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져 필리핀 내 FDI를 위한 대출 수요를 더욱 촉진할 수 있습니다.”라고 리카포트는 설명했다.

HSBC 아세안 담당 이코노미스트 아리스 다카나이(Aris Dacanay)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리핀 자산을 선호하게 된다면, 폐소화가 견조한 흐름을 보일 수 있으며, 이는 BSP가 미국 Fed보다 더 빠르게 혹은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카나이는 BSP가 8월과 12월 각각 25bp씩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하여 연말까지 정책금리를 5.00%로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BSP는 글로벌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리 인하에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할 가능성이 큼니다.”라고 다카나이는 덧붙였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us-tariffs-uncertainty-could-hamperfdi-inflows-into-ph-analysts/>

필리핀, 글로벌 무역 충격에 덜 취약하다—발리사칸

April 14, 2025 | Reuters | BusinessWorld



PHILIPPINE STAR/WALTER BOLLOZOS

마닐라 – 필리핀은 아시아 이웃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무역 의존도를 가지고 있어 글로벌 경제 충격에 대한 완충 장치 역할을 한다고 아르세니오 발리사칸 국가경제개발청(NEDA) 장관이 월요일에 말했다.

"우리 경제는 이웃국가들에 비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충격에 취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경제의 무역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라고 발리사칸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안주하지 말고, 수출 성과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고하며, 시장을 다변화하고 투자 제약을 해결하여 필리핀이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인한 무역 전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필리핀을 투자 가능한 목적지로 보이도록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의 배가, 심지어 세 배가 필요합니다,"라고 발리사칸 장관은 말했다.

필리핀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로 촉발된 글로벌 무역 전쟁에서 예외가 아니며, 워싱턴은 필리핀 수출품에 대한 세금 부과를 위협하고 있다.

이미 한국과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필리핀은 미국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여 시장 접근을 보호하고 확대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4/14/665763/philippines-less-vulnerable-to-global-trade-shocks-balisacan/>

필리핀을 포함한 39개 WTO 회원국, 규칙 기반 무역 지지

April 14, 2025 | Andrea E. San Juan | BusinessMirror

세계무역기구(WTO) 166개 회원국 중 필리핀을 포함한 39개국이 보호무역주의와 불공정 관행이 확산되는 가운데 "규칙 기반의 투명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무역 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들 회원국은 국가 간 무역 규칙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인 WTO의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39개국은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WTO의 구속력 있는 규칙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 이러한 규칙은 기업에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며, 국제 무역과 개발의 성장을 뒷받침해왔다"고 강조했다.



Stacks of containers at the Manila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at the Philippine capital on Tuesday, April 8, 2025. (AP Photo/Aaron Favila)

세계 무역 및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무역이 모든 회원국에게 "성장과 번영의 원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WTO는 "그 모든 기능에 대한 필수적인 개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공동 성명은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 회원국은 WTO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분쟁해결제도를 완전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하기로 약속했다.

향후 이들 WTO 회원국들은 "WTO가 다양한 회원국의 요구에 계속 부응하고, 무역 역량 강화를 포함한 협력을 통해 그 중요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성명에 서명한 WTO 회원국은 다음과 같다: 알바니아, 호주, 바레인, 브루나이 다루살람, 카보베르데, 카메룬, 캐나다, 코스타리카, 피지, 감비아, 과테말라, 홍콩(중국), 아이슬란드, 쿠웨이트, 키르기스 공화국,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라이베리아,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몰도바 공화국, 몽골,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오만, 페루, 필리핀,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평후·진먼·마쭈의 개별관세영역,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우루과이, 바누아투, 예멘.

한편, 주말 동안 필리핀 산업통상부(DTI) 산하 국제무역관계국(BITR)은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필리핀을 포함한 39개 WTO 회원국이 지지한 이번 성명은 WTO의 성과를 인정하고, 다양한 회원국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의 개혁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Cont. page 4]

필리핀을 포함한 39개 WTO 회원국, 규칙 기반 무역 지지

[Cont. from page 3]

이들 회원국은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등 여러 도전 속에서 규범 기반 다자간 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이고 개방된 글로벌 무역 체제를 제공하는 규범 기반 다자간 무역 체제의 핵심으로서 WTO의 중심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재확인합니다.”라고 지지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기후 변화 등 점점 커지는 도전 과제 속에서 WTO 원칙에 대한 우리의 공동의 의지와 무역 개방성 유지에 대한 헌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 속에서 무역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규범은 무역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가능하게 하며, 보호무역주의와 불공정 관행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또한 WTO 내 북수국 간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무역의 핵심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했습니다.”라고 39개 회원국은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회원국들이 결과 중심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결정을 내리며, 글로벌 경제의 변화하는 역학에 부응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과감하고 공동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39개국의 성명은 전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WTO가 앞으로도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규범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 체제의 초석으로 남도록 보장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4/14/39-wto-members-including-phl-for-rules-based-trading/>

필리핀 전자제품 수출, 트럼프 세금 면제 덕분에 구제받다 — MUFG

April 14, 2025 | Ben Arnold de Vera | Manila Bulletin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전자제품에 대한 세금 면제는 필리핀의 주요 수출 품목에 일정한 구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일본 금융 대기업 MUFG 은행이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폭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신흥 시장으로서 필리핀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며, 국내 인플레이션 하락을 통해 필리핀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14일 보고서에서 MUFG 글로벌 마켓 리서치의 수석 통화 분석가 마이클 완(Michael Wan)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말에 발표한 내용—스마트폰, 반도체 및 기타 주요 전자 제품이 상호 세금과 중국에 대한 추가 125% 세금에서 면제된다는 발표—이 아시아 제조업체들에 단기적으로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금 면제는 약 3,8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을 포함하며, 이는 트럼프가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에 발표한 반도체 중심의 450억 달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완은 “예를 들어, 대만은 수출품의 53%가 추가로 면제되며, 그 다음은 태국과 베트남이 28%, 필리핀은 26%, 말레이시아는 25%로 면제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품 믹스는 시장별로 차이가 있으며, 대만에서는 컴퓨터 및 데이터 관련 수출이 면제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필리핀은 그보다 적은 비율이 면제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자제품과 반도체는 필리핀 전체 상품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미국으로의 수출은 이웃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싱가포르 기반 DBS 그룹 리서치의 이전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필리핀의 미국에 대한 주요 수출 품목은 컴퓨터 액세서리였으며, 이는 겨우 31억 달러의 가치에 불과합니다. 필리핀의 반도체 미국 수출은 지난해 21억 달러에 불과하며,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는 16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완은 트럼프의 최신 조치가 “반도체 및 전자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 간에 중요한 분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ont. page 5]

필리핀 전자제품 수출, 트럼프 세금 면제 덕분에 구제받다 — MUFG

[Cont. from page 4]

"이 전자제품에 25%의 일률적인 세금이 부과된다고 가정할 경우, 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주말에 발표된 세금 면제 일시 중단에 비해 중국에 비해 더 높은 세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한편, MUFG의 신흥 시장 리서치 책임자 에산 코만(Ehsan Khoman)과 리서치 분석가 김수진(Soojin Kim)은 4월 10일 보고서에서 신흥 시장 경제국들 가운데 "이집트, 이스라엘, 필리핀, 터키가 가장 무역적으로 차단된 국가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가 주도한 글로벌 무역 전쟁 속에서 필리핀의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전직 식민지 국가—는 필리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MUFG는 밝혔습니다.

"대만과 필리핀을 차단되지 않은 미국 외국 원조 수혜국으로 선택한 것은 미국의 이익에 대한 신흥 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시사합니다."라고 MUFG는 지적했습니다.

트럼프의 세금과 중국의 보복 세금이 초래할 인플레이션 영향에 대비하는 가운데, MUFG는 필리핀의 올해 인플레이션이 0.9%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상위 수준에서 세금의 첫 번째 영향은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공급 충격과 유사하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실질 소득 감소를 초래합니다."라고 MUFG는 설명했습니다.

"무역 파트너국들에겐 이는 부정적인 외부 수요 충격과 유사하며, 이는 수출을 약화시키고 교역 가능한 제품 부문에서 국내 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키는 압력을 가합니다...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에 직면하면서, 나머지 세계(여기에는 신흥 시장 포함)는 디플레이션 충격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체적으로 MUFG는 미국의 17% 상대 세금 일시 중단과 중국의 보복 세금이 2025년 필리핀의 실제 국내 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0.7%로 추정하며, 이는 신흥 시장 중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라엘, 인도, 콜롬비아와 함께 포함됩니다.

[Source: https://mb.com.ph/2025/4/14/philippine-electronics-exports-get-relief-from-trump-tariff-exemption-mufg](https://mb.com.ph/2025/4/14/philippine-electronics-exports-get-relief-from-trump-tariff-exemption-mufg)

필리핀, 전자제품 및 전기차(EV) 제조업체 유치를 위해 한국에 제안

April 14, 2025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정부는 전자 제조 서비스, 반도체 제조 서비스, 전기차(EV), 첨단 농업, 청정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 기업들이 필리핀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은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4월 6일부터 8일까지 한국에서 열린 '기업 회복 및 세금 인센티브를 통한 경제 재활성화 기회 극대화(CREATE MORE)' 로드쇼에 필리핀 대표단과 함께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미션의 하이라이트는 4월 7일에 필리핀 대사관과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한 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이었습니다."라고 PEZA는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은 필리핀을 잠재적인 한국 투자자들에게 주요 투자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CREATE More 법 하에 새롭게 도입된 인센티브를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미션에서, 필리핀 대통령 투자경제특보 사무실을 이끄는 프레드릭 D. 고(Secretary Frederick D. Go)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은 포럼 사이드에서 열린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 회의에서 약 80개의 한국 기업과 만났습니다.

CREATE MORE 법은 "사업을 쉽게 하고, 비용을 줄이며, 예측 가능성을 높여 — 이는 파트너 여러분의 신뢰를 증대시키는 요소들입니다."라고 고 장관은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더 많은 것을 창출할 때입니다 — 더 많은 투자, 더 강한 파트너십, 그리고 더 큰 성공의 기회를 위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Cont. page 6]



필리핀, 전자제품 및 전기차(EV) 제조업체 유치를 위해 한국에 제안

[Cont. from page 5]

회의 중, PEZA는 KC & A Corp.와 HiTec RCD Philippines와 같은 기존 입주 기업들과 만나 운영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CREATE More 법 하에 강화된 인센티브가 이들의 현재 활동을 지원하고 향후 확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Nechon Co.와 만나... 한국 평택항 개발, 운영 및 홍보를 주로 담당하는 Gyeonggi Pyeongtaek Port Corp.와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라고 PEZA는 밝혔습니다.

PEZA의 테레스 O. 팡가(Teresco O. Panga) 국장은 한국이 필리핀 경제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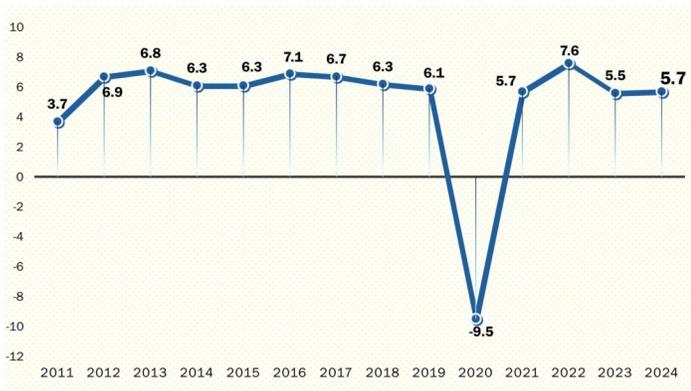
"현재 한국은 PEZA에서 다섯 번째로 큰 외국인 투자국으로, 1,000억 페소 이상의 국가 투자 포트폴리오와 약 16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으며, 39,000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에게 소중한 성장 중심지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팡가 국장은 말했습니다.

"이번 미션이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열어주고, CREATE MORE 법과 PEZA가 제공하는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통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04/14/665903/phl-pitches-s-korea-for-electronics-ev-locators/](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04/14/665903/phl-pitches-s-korea-for-electronics-ev-locators/)

세계 불확실성 속에서 8%에 가까운 성장보다 6% GDP 성장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NEDA 발표

April 15, 2025 | Angela Celis | Malaya Business Insight



필리핀 경제 성장률은 현재의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2025년 정부의 예상 성장 범위 상단보다는 하단에 더 가까운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고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밝혔습니다.

월요일 파식 시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르세니오 발리사칸 NEDA 장관은 경제가 정부의 6%에서 8%의 연간 성장률 전망 중 하단인 6%에 더 가까운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NEDA는 올해 GDP 성장률이 6%에서 7% 사이에 이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 첫 분기에 대한 추가 정보가 확보되면, GDP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수치에 대해서도 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장 전망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라고 발리사칸 장관은 말했습니다.

"저는 현재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이는 가까운 시일 내에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8%는 더 이상 현실적인 가정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발리사칸 장관은 정부가 올해 6%에서 8%의 성장률 가정을 사용한 이유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할 여유를 두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목표와 성장 가정을 결정할 때, 우리가 가진 넓은 범위의 유일한 이유는 글로벌 경제가 예전보다 더 불확실하다는 인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식에 일정한 유연성을 두고 싶었습니다."라고 발리사칸 장관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달 안에 상황이 더 명확해지면, 보다 현실적인 경로를 설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2025년 전체에 대해 6%에서 7%의 GDP 성장은 여전히 "가능성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NEDA는 밝혔습니다.

"저는 두 번째 분기가 꽤 도전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의 회복 시나리오가 해결될 때까지는 말이죠,"라고 발리사칸 장관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제에 대해서, 전체 연간으로 보면,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전략과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Cont. page 7]

세계 불확실성 속에서 8%에 가까운 성장보다 6% GDP 성장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NEDA 발표

[Cont. from page 6]

1분기 GDP 결과

정부는 2025년 1분기 GDP 결과를 5월 8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4년 1분기 GDP는 5.9% 성장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1분기에 그 정도로 가까운 성장을 달성한다면, 그것은 제게 존경할 만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저는 6%를 보고 싶습니다,”라고 발리사칸 장관은 말했습니다.

1분기 성장 동력에 대해 질문을 받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부분 아마도 국내 소비가 될 것입니다. 수출은 1분기나 올해 내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역에서의 이러한 혼란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출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라고 발리사칸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수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투자와 함께 성장의 두 번째 기둥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폭풍이 잠잠해지면, 우리의 경제가 발생할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더 좋은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미국의 세금 시뮬레이션

한편, 정부가 실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미국이 필리핀에 부과한 17%의 세금은 필리핀 총 수출에 1.5% 증가라는 전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에 대해 145%라는 훨씬 높은 세금도 고려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전체 수출 증가뿐만 아니라 GDP 증가 면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순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미국에 대한 우리의 수출은 다른 이웃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수출에서 얻는 이점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라고 발리사칸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90일 동안의 유예가 끝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의 상호세금에 포함되는 제품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발리사칸 장관은 말했습니다.

‘매우 광범위한’ 불확실성

발리사칸 장관은 어느 제품이 더 높은 세금을 부과받았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광범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글로벌 무역과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필리핀도 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발리사칸 장관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투자 및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보고 싶은 것은 전반적인 투자 및 무역 환경이 안정되고, “더 예측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NEDA의 DepDev로의 개편

4월 11일 금요일, NEDA는 자사가 경제, 계획 및 개발 부서(DepDev)로 재편성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NEDA는 성명에서 4월 10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경제, 계획 및 개발법(공화국 법률 제12145호)을 서명하여 DepDev의 새로운 헌장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법은 국가 경제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 계획, 조정 및 모니터링 기관으로서 NEDA의 임무, 제도적 독립성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DepDev의 설립은 과거와 미래의 개발 전략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 결국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 궤적을 보장하고, 경제 발전이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이 있고, 모든 필리핀 국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라고 발리사칸 장관은 말했습니다.

이 재편성으로 해당 부서는 이제 완전한 내각 수준의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에 따른 또 다른 중요한 개혁은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모니터링 및 평가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 호출(Planning Call)의 제도화입니다. 이를 통해 명확한 기준, 지침 및 책임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정부의 의사결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개발 우선사항을 예산 과정에 통합하여 비효율성과 지연을 줄이며, 공공 자원이 국가 개발 요구에 가장 부응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배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6-gdp-growth-more-feasible-now-than-near-8-amid-global-uncertainty-neda/>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Our Areas of Expertise



PROPERTY INSURANCE 재물

Industrial All Risks 재산종합 | Fire Broad Named Perils 화재 |
Commercial All Risks 영업종합 | Machinery Breakdown 기계
Business Interruption 기업휴지 | Contractors' All Risks 건설종합 |
Equipment Floater 장비



MOTOR 자동차

CTPL 책임보험 | Comprehensive 종합보험 | Fleet Policy 그룹증권



PEOPLE SOLUTIONS 직원복지

Life 생명 | HMO 의료실비 보험 | Clinic Management 의료관리 |
Key Person Insurance 경영자보험



MARINE INSURANCE 적하/물류

Single Shipment 수입/수출 일회운송 | Marine Open 수입/수출 연간보험 |
Inland / Inter-island 내륙운송/섬간 이동 운송 | Stock Throughput 물류종합



ACCIDENT & TRAVEL 상해 & 여행자

Personal Accident (Individual & Group), Travel (Individual & Group)



LIABILITY 배상책임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영업배상 | Product Liability 생산물배상 |
Freight Forwarders' Liability 물류업자배상 |
Professional Indemnity 전문인배상 | Directors and Officers 임원배상



OTHERS 기타보험

Bonds 보증보험 | MSPR 현금도난 | Fidelity 신원보증 | Trade Credit 신용보험 |
Political and Terrorism 정치적위험 및 테러 | Cyber Insurance 사이버보험

We Answer To No One But Our Clients

Lockton Philippines Insurance & Reinsurance Brokers, Inc.

29th and 36th Floors, Rufino Pacific Tower, 6784 Ayala Avenue corner
V.A. Rufino Street, Makati City, Philippines 1200

+632 8811 0388 info.philippines@lockton.com

For Korean accounts, you may contact Hye-Won "Eunice" Park 박혜원 팀장
eunice.park@lockton.com +63 917 854 7930

